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 특성

지혜경·이은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s by the Business Cycles in Korea

Hye-Kyung Ji · Eun-Young R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4. 2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s by the business cycl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first quarter of 1979 to second quarter of 1998.

Business cycles were examined using data GNP from the National Account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nd clothing expenditures from the monthly statistics of Korea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standard deviation, sample cross-correlation coefficient and skewness statistic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During the period of 1979.I ~ 1998.II, GNP and per-person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clothing and sho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except during 1980 and the recent depression of the national economy. Clothing expenditures dropped severely during the two depression periods. Clothing expenditures were the highest in the fourth quarter and the lowest in the third quarter of the year. 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business cycl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lothing expenditures. The volatility of the clothing expenditures was 2.60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business cycles. 3. Clothing expenditures displayed procyclical fluctuation and coincident movement to the business cycles. Also, clothing expenditures showed an unsymmetric behavior over the expansion phases and contraction phases of the business cycles. That is, the clothing expenditures increased slowly in the expansion phases and decreased quickly and severely in the contraction phases of the business cycles.

Key words: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s, business cycles; 피복소비지출, 경기변동

I. 서론

한 나라의 경제 상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호황이면 여유소득의 증가로

상품에 대한 관심이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져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매가 늘어나고, 반대로 불황에 놓이면 여유소득의 감소로 변화에 대한 욕구나 관심이 떨어져 구매력이 줄어든다(이은영, 1997). 경기상태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

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호황기였던 지난 1988년에는 실질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10.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1997년말부터 시작된 최근의 불황기에는 불황에 따른 소비지출의 감소로 1998년 1사분기의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19.2%의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1997년 말 이후의 소비지출 감소율은 과거 상당히 큰 불황기였던 1980년도 보다 더욱 커서 최근의 불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소비지출 중에서 내구재 소비지출이 가장 크게 위축되었고, 내구재 중에서도 특히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의 구매력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98년 2월 28일). 또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여러 소비지출 비목 중에서 외식비, 가구가사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 비목에서의 감소율이 매우 커서 1998년 2사분기의 이들 비목의 소비지출 감소율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볼 때, 전년 동기에 비해 -28%~ -30%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피복신발비는 -30%의 감소율을 보여 다른 어떤 비목보다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의 서울지역 경제동향, 1998, 9).

이와 같이 소비지출, 특히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 경향은 경기 상태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류학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¹⁾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이나 소비자학 분야에서 전체소비나 가계소비를 대상으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나 영향 정도를 밝히고 있으나 이런 연구들은 개별 비목보다는 민간소비 전체 혹은 가계단위의 소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인 피복소비지출

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소비지출의 변화를 다룬 경제학 연구들은 그 목적이 주로 국가의 경기안정이나 경제정책수립에 있으므로 소비품목의 구분도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정도의 상당히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자 소비품목을 더욱 세분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들 자료 대부분은 일시적인 시점에서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류학의 관심 대상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영향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는지,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소비자들의 소비행동특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생산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효과적인 경기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경기변동의 정의 및 측정

(1) 경기변동의 정의

경기변동이란 생산, 고용, 소비, 투자, 무역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장기성장추세치를 중심으로 확장과 수축의 순환국면을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송원호, 1998).

경기변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형태는 한 나라의 경제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 즉, 시기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충격이 작용하여 각기 다른 종류의 호황과 불황을 일으키므로 매 순환기마다 그 형태가 동일하지는 않다(조하현, 1991).

Burns와 Mitchell(1946 : p. 3)은 경기변동이 반복적이긴 하지만 주기적이지는 않은 특성에 대하여 "경기변동이란 주로 기업활동에 의하여 경제가 운용되고 있는 국가의 총체적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¹⁾ 본 글에서의 피복소비지출은 통계청의 소비지출 분류 중 피복 및 신발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복은 물론 신발, 모자, 장갑 등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직물/실의 구입 및 세탁, 수선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도 포괄하는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변동이다. 하나의 순환은 수많은 경제활동들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팽창과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기후퇴와 위축 그리고 다음 순환의 팽창국면으로 연결되는 회복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변동은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주기적인 것은 아니다. 순환의 주기는 1년 이상의 것에서 부터 10년 혹은 12년의 주기 등 다양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표 1>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통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경기 전환점 및 순환주기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6번의 공식적인 경기변동이 있었고, 현재(1998년 2사분기)는 7번째 순환의 경기하강기에 놓여 있다. 매순환은 평균 약 50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팽창기간은 33개월로 위축기간 16개월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

<표 1> 우리나라의 경기전환점 및 순환주기 (단위 : 개월)

순환기	정점	저점	팽창기간	위축기간
제 1순환	1971. 4	1972. 3	—	11
제 2순환	1974. 2	1975. 6	23	16
제 3순환	1979. 2	1980. 9	44	19
제 4순환	1984. 2	1885. 9	41	19
제 5순환	1988. 1	1989. 7	28	18
제 6순환	1992. 1	1993. 1	30	12
제 7순환	1996. 3	—	—	—
평균			33	16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기간 : 1971. 4~1998. 6

(2) 경기변동의 측정

경기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입, 기술진보, 통화량 변화 등과 같은 내적 요인과 기후, 심리적 요인, 정치적 사건 등과 같은 외적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상태에서, 경기변동을 어떠한 지표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을 통계적으로 예측 또는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경기지표에 의한 방법, 기업조사(business survey)에 의한 방법, 계량경제모형에 의

한 방법, 개별 경제지표에 의한 종합판단 방법 등이 있다(최승로, 1988). 경기지표에 의한 방법은 경제 각 부문을 잘 반영해주는 개별지표들을 추출한 후에 이를 통계적으로 가공, 분석, 종합하여 전체 경기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 이용하고 있는 경기지표에는 경기확산지수, 경기종합지수가 있다. 기업조사(business survey)에 의한 방법은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전망이나 판단, 이에 대비한 계획 등이 경제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방법은 GNP를 모형에 의해 추정하여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GNP의 추정은 그 관련요소들과의 인과관계를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구성변수들을 도출한 후 방정식의 설정을 통해 측정한다. 개별 경제지표에 의한 종합판단 방법은 생산, 판매, 투자, 고용, 수출 등 경기변동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개별지표들을 이론이나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종합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통계청에서 경기 선행지표 10개, 동행지표 8개, 후행지표 5개를 이용하여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순환의 측정 수단인 기준순환일은 경기변동과 관련이 깊은 경제시계열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잠정적으로 경기정점과 저점을 추출한 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양병선, 1997).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경기상태를 나타내 주는 단일경제지수로서 국민총생산(GNP)을 사용하였다. 국민총생산(GNP)은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생산 그리고 투자활동을 통하여 결정된 경제활동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분석 목적이 경기 순환점을 파악하는데 있지 않다면 실질 GNP의 장기 성장 추세치로부터의 이탈은 경기변동을 잘 반영한다(최승로, 1988 : 홍인득, 1989 : 김기화, 1990). 그러나 경기를 단기에측할 경우에는 GNP의 추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분기별로 작성되므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한 단점이 있기도 하다.

2. 경기변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가 호황 또는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한가 아니면 부진한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경기상태에 따라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경기가 위축국면에 접어들면 경제활동은 전반적으로 침체된다. 일반적으로 불황의 초기에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어 기업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매출감소로 인한 재고가 증가한다. 불황이 좀더 심화되면 생산자는 생산량 조절을 통해 재고를 줄여 나가는데, 이 단계에서 생산감축에 따른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고용감소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며 실업의 증가는 개인소득의 감소와 그에 따른 소비억제를 가져온다. 또한 물가, 임금, 고용, 국제수지, 이자율 등의 거시경제변수들도 불황의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심한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까지도 초래하는 등 경제 외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김기화, 1990 : 홍인득, 1989 : 양병선, 1997).

반면에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면 모든 경제 제 분야의 톱니바퀴는 호전되는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사정이 좋아지며 실업률이 감소한다. 생산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즉, 생산증가 및 기업수입의 확대는 설비투자를 자극하고, 개인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증대시킨다(조하현, 1991). 더 나아가 호황상태가 과열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과도한 소비가 일어나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홍인득, 1989).

이와같이 경기변동은 가계와 기업, 국민경제 등 여러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은 적기에 투자와 생산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국민경제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소비자의 소득, 상품의 가격, 소비자 기호의 변화, 미래의 직업 및 재정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 소비자의 재산 등이 있다(정수진,

1996). 이 중에서 소비자의 소득, 직업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전망은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소비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라나 일본의 심각한 불황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보면, 일본은 1991년 이후 점차 불황에 접어들면서 전국 근로자세대의 실수입성장율이 1991년 5.2%, 1992년 2.7%, 1993년 1.2%, 1994년 -0.6%로 계속 하락하였고(신한리뷰, 1998, 가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국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성장율(명목소득 기준)이 1997년 3사분기 이후 계속 하락하여 1997년 1사분기에는 9.3%이던 것이 1997년 4사분기에는 0.6%, 1998년 1사분기에는 -2.8%, 1998년 2사분기에는 -5.3%(1995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질소득은 -12.5%)로 떨어졌다.

소득감소와 더불어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소비지출 감소율은 1997년 4사분기 -0.6%, 1998년 1사분기 -8.8%, 1998년 2사분기 -13.2%로 소득 감소율보다 소비지출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상가격 기준). 소비지출 중에서도 외식비, 가구가사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 비목의 소비가 크게 감소해 1998년 2사분기의 이들 비목의 소비지출 증감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외식비 -28.0%, 가구가사비 -28.6%, 교양오락비 -29.4%, 피복신발비 -30.0%를 기록하였다(경상가격 기준).

또한 소비지출감소는 내수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전국 백화점의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1997년 2사분기에 0.8%, 1998년 2사분기는 -18.2%의 증감율을 보였고(불변가격 기준), 전국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지수는 1998년 2사분기에 -2.5%의 증감율(경상가격 기준) 나타내었다(최근의 서울 지역 경제동향, 1998, 9).

일반적으로 내구재는 비내구재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원호(1998)는 내구재 소비지출의 변동성이 경기변동성의 2.5배이고, 준내구재는 1.3배, 비내구재는 0.6배, 서비스는 0.7배 정도됨을 밝혀 내구재의 변동성이 경기변동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민원(1990),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5)도 내구재 소비는 비내구재 소비와는 달리 경기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내구재 소비지출이 비내구

재 소비지출보다 경기의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구재가 비내구재와는 달리 미래의 소비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내구재 소비지출을 결정할 때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기변동 패턴을 보면, 대체로 경기상승 과정은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하지만 경기 후퇴기에는 신속하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김기화, 1990 : 최승로, 1988 : 조하현, 1991). Keynes(1936), Burns와 Mitchell(1946)도 경기가 하락국면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우 갑작스럽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비대칭 현상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지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원호, 1998).

정수진(1996)의 연구에서 피복이 내구재적 특징을 갖는 소비비목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피복소비지출은 내구재 소비지출이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갖는 일반적인 변동 특성을 같이 가지리라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소비지출 고유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피복소비지출의 추이 및 분기별 특성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본다.
- 2-1 피복소비지출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여부 및 영향 정도를 알아본다.
- 2-2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소비지출의 변동형태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피복소비지출의 각 비목들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본다.
- 3-1 피복소비지출의 각 비목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여부 및 영향 정도를 알아본다.

- 3-2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의 변동형태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경기변동지표 및 피복소비지출은 1979년 1사분기~1998년 2사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이며 자료를 실질화를 위해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불변가격화하였다.

1) 경기변동지표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단일경제지수로 국민총생산(GNP)을 사용하였으며 GNP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국민계정의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한 실질 GNP로 하였다.

2) 피복소비지출 자료

소비지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한국통계월보의 전도시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을 가구 구성원수로 나눈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및 피복소비지출로 하였다. 총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료,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잡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복소비지출은 <표 2>와 같은 비목으로 이루어져

<표 2>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 및 세부품목

비목	세부 품목
외의	한복, 신사복, 숙녀복, 코트, 학생복, 아동복, 점퍼, 바지, 스커트, 운동복, 기타 외의
스웨터/셔츠	와이셔츠, 남방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어린이 스웨터 셔츠
내의	남자 내의, 여자 내의, 어린이 내의, 잠옷
직물/실	양복지, 양장지, 한복지, 기타 직물, 실
기타피복	양말, 스타킹, 기타 양말, 모자, 목도리, 넥타이, 장갑, 기타 피복
신발	남자 구두, 여자 구두, 아동화, 운동화, 고무신, 슬리퍼, 기타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재봉료, 세탁료, 수선료, 기타 서비스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있다. 자료를 실질화하기 위해 통계청의 물가년보에 실린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한 불변가격을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의 피복소비지출 추이는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액을 분기 단위로 살펴보았으며, 분기별 특성은 분석기간을 5년 간격으로 나누어 분기별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액을 비교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을 밝히는 데는 각 변수의 원시계열에서 계절변동, 불규칙변동, 추세변동을 제거한 순환변동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시계열은 4개의 변동요인 즉,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 장기운동의 추세변동, 경제활동의 팽창과 위축이라는 불규칙적이며 반복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순환변동, 12개월을 주기로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계절변동, 홍수나 가뭄과 같은 일기의 불순, 정치적 불안정, 전쟁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경제활동에 변화가 오는 불규칙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변동요인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경제활동의 순환변동이므로 순환변동값은 원시계열에 대수(log)를 취하여 4분기 전의 값을 빼주는(차분: differencing) 방법으로 구하였다. 즉, 원시계열의 수준(level) 자료를 대수(log)자료로 바꾸고 차분(differencing)을 해주면 그 시계열은 추세요인이 제거된 안정적 시계열이 되고, 같은 분기끼리 비교하므로 계절요인이 없어지며, 12개월 동안의 간격을 두고 비교하므로 단기변동을 하는 불규칙 요인도 제거된다(최승로, 1988: 김기화, 1990: 이민원, 1990: 조하현, 1991).

연구문제 2-1과 3-1의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 및 피복소비지출의 각 비목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인당 월평균 불변 피복소비지출의 순환변동값을 종속변수로, 경기변동지표인 실질 GNP의 순환변동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소비지출의 변동 정도는 변동성의 정의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계열의 순환변동값의 표준편차로 알아보았다. 이는 피복소비지출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어느 정도 변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편차의 크기가 클수록 그 변수의 시간에 걸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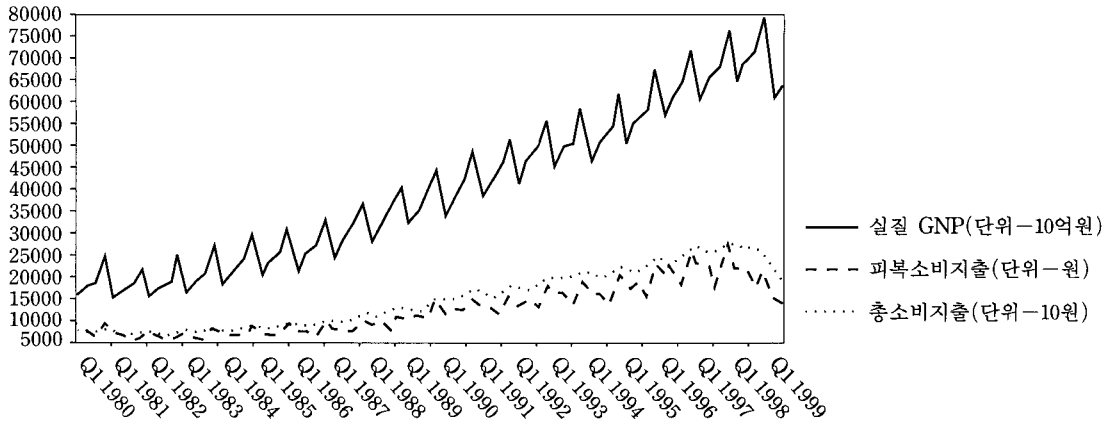
변동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2와 3-2의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소비지출 및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의 변동형태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는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순응하는지 혹은 역행하는지, 또한 피복소비지출은 경기변동에 선행하는지, 동행하는지, 후행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표본교차상관계수로서 알아보았다. 표본교차상관계수는 그 최대치가 양(+)의 값이면 두 변수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즉, 경기순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음(-)의 값이면 경기역행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본교차상관계수의 최대치의 절대값이 어느 기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선행, 동행, 후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피복소비지출이 변동폭의 정도와 지속기간의 측면에서 경기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대칭적인지 혹은 비대칭적인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왜도통계량(skewness)으로 살펴보았다. 왜도통계량은 그 값이 0이면 팽창국면과 하강국면이 대칭적임을 뜻하고, 양(+)이면 팽창국면의 속도가 위축국면보다 빠르게 진행됨을, 음(-)이면 팽창국면이 위축국면보다 더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1. 피복소비지출의 추이 및 분기별 특성

[그림 1]은 1979년 1사분기~1998년 2사분기의 실질 GNP,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의 분기별 변화추이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몇 십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급격한 고도성장을 한 바와같이 실질 GNP,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 모두 분기마다 기복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1980년도의 불황기를 제외하고 실질 GNP는 1997년 4사분기까지, 총소비지출은 1997년 3사분기까지, 피복소비지출은 1996년 4사분기까지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가 1997년말부터 극심한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질 GNP,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 모두 절대액 자체가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피복소비지출은 1996년에 월평균 최고 23,923원까지 증가했다가 1997년에 21,765원으로,



[그림 1] 실질 GNP,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의 변화추이

1998년 상반기에 15,377원으로 급격히 떨어져 소비자의 여러 소비지출 비목 중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표 3>은 실질 GNP,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및 피복소비지출을 5년 간격으로 나누어 분기별 특성을 본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실질 GNP,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 모두 가장 높은 분기는 4사분기였으며 가장 낮은 분기는 각기 차이가 있어 실질GNP는 1사분기, 총소비지출은 2사분기, 피복소비지출은 3사분기로 나타났다. 피복소비지출이 3사분기에 가장 적은 이유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

피복의 단가가 비교적 낮고, 또 착용품목의 수도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복소비지출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1) 피복소비지출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여부 및 영향 정도

연구문제 2-1의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피복소비지출은 경기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구재의 소비지출이 경제변수들과 관계가 깊으며 소비자가

<표 3> 실질 GNP,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의 분기별 특성

(단위 : 실질 GNP-10억원/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원)

		'79~'83	'84~'88	'89~'93	'94~'97
실질 GNP	1사분기	16,052	25,493	41,642	58,275
	2사분기	18,836	28,995	45,711	63,126
	3사분기	20,172	31,698	48,315	66,005
	4사분기	25,808	37,563	55,489	74,298
총소비지출	1사분기	76,941	108,785	185,578	264,176
	2사분기	72,768	100,246	179,897	248,875
	3사분기	76,405	110,817	188,427	257,283
	4사분기	81,700	124,157	202,340	265,870
피복소비지출	1사분기	7,215	8,699	15,019	21,346
	2사분기	6,600	9,181	15,625	22,327
	3사분기	5,802	8,096	13,564	18,589
	4사분기	7,738	11,591	18,460	25,418

내구재의 소비지출을 결정할 때는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한다고 한 현대사회연구원(199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7.4%로 총소비지출의 48.7%보다 높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여러 소비 비목 중에서 특히 피복소비지출이 사회 전체의 경기변화에 보다 민감하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기간 동안 피복소비지출이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4), 경기변동 4.57, 총소비지출 7.09, 피복소비지출 11.89로 피복소비지출의 변동성이 경기변동성보다 2.60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구재 소비지출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송원호, 1998 : 이민원, 1990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내구재의 변동성이 경기변동성보다 훨씬 크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조하현(1991), 김기화(1990), 송원호(1997)의 연구에서 민간 소비지출의 변동성이 경기변동성의 0.4~0.6배 정도로 밝혀진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소비지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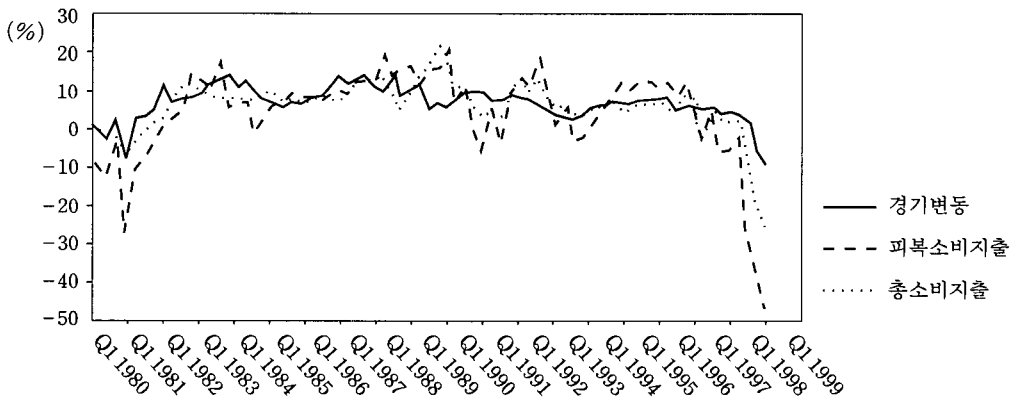
체의 변동성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피복소비지출은 이러한 안정성을 흐트러 뜨리는 비목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분석기간 동안 경기변동, 총소비지출변동, 피복소비지출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피복소비지출의 변동성이 경기변동성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중 경기침체 정도가 가장 심했던 1980년도와 1997년 말 이후의 피복소비지출 감소율은 최대 호황기였던 1988년의 증가율보다 더 커서, 피복소비지출은 호황보다는 불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경기불황기에 피복소비지출이 더 많이 감소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경기 불황에 따른 소득 감소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피복의 특성이 사회가 특히 불안정하거나 경기침체기에 있을 때 혹은 그런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부가적인 구매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재고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생활을 유지할 수 품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정수

〈표 4〉 경기변동이 피복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및 피복소비지출의 변동성

피복소비지출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피복소비지출의 변동성		
	표준화된 회귀계수	R ²	F		표준편차	경기변동성과의 비율
총소비지출	.698	.487	68.227***	경기변동	4.57	
피복소비지출	.758	.574	97.158***	총소비지출	7.09	1.55
				피복소비지출	11.89	2.60

***p<.001



[그림 2] 경기변동과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의 변동

〈표 5〉 표본교차상관계수

	관측치(분기)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총소비지출	-.01	.04	.12	.16	.24	.32	.51	.70	.55	.45	.41	.33	.26	.17	.11
피복소비지출	.01	.04	.12	.17	.29	.42	.58	.76	.58	.44	.41	.29	.24	.18	.06

진, 1996). 이런 현상은 의류제품소비가 소비자의 미래경제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Sproles(1979)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2-2의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순행하는지 아니면 역행하는지, 또 경기변동과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교차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5). 표본교차상관계수의 최대치가 양수이고 그 절대값이 0분기에 있으므로 피복소비지출은 경기순응적이고 경기와 동행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전체의 경기가 상승 혹은 하락하는 분기에 피복소비지출도 같이 증가 혹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경기상승국면과 하락국면에서 피복소비지출의 지속기간 및 변동폭 정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6), 왜도통계량이 음수로 나와서 피복소비지출의 움직임은 경기상승국면과 하락국면이 비대칭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경기상승국면은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위축국면은 신속하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복소비지출의 이러한 변동형태는 소비의 '비가역성' 즉, 소비지출은 소득이 감소하여도 과거의 소비수준에서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경향이 피복소비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기상승국면과 하락국면에서 피복소비지출의 비대칭적 변동형태는 의류산업 관련 마케팅이나 생산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업계는 중, 장기적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사회 전체의 경기흐름이라는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특히 경기 상승기에는 물량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경기 후퇴기에는 경기 상승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감소시키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본다.

3. 피복소비지출의 각 비목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1)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여부 및 영향 정도

연구문제 3-1의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은 경기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 모두는 경기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 중 특히 외의, 신발, 스웨터/셔츠 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2.9%~55.3%로 다른 비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의 변동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7), 비목들의 변동성은 12.02~31.41로 경기변동성의 4.57보다 크게 나타났다. 비목 중 경기변동에 의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외의, 신발, 스웨터/셔츠의 변동성은 12.02~13.42로 사회 전체의 경기변동성보다 2.63~2.94배 정도 높았다.

비목 중에서 특히 외의, 신발, 스웨터/셔츠의 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이들 세 비목이 피복소비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85%로 상당히 높고, 또 정수진(1996)의 연구에서 1975~1993년 동안 이들 비목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외의 3.34배, 신발 5.35배, 스웨터/셔츠 3.13배로 피복소비지출 전체의 증가율 3.10배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생활의 증가, 외복의 캐주얼화, 패션화의 확산으로 이들 세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을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했고 또한 소비자들이 사회 전체의 경기상태 여파에 따라 이들 세 비목에서의 소비지출을 상당히 유동적으로 가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왜도통계량

경기변동(실질 GNP)	총소비지출	피복소비지출
-1.40	-1.74	-1.91

〈표 7〉 경기변동이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에 미치는 영향 및 각 비목의 변동성

	피복소비지출의 각 비목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의 변동성	
	표준화된 회귀계수	R ²	F	표준편차	경기변동성과의 비율
				경기변동	4.57
외의	.744	.553	89.017***	13.10	2.87
스웨터/셔츠	.655	.429	54.149***	13.42	2.94
내의	.508	.258	25.007***	12.92	2.83
직물/실	.315	.100	7.956*	31.41	6.87
기타피복	.429	.184	16.204***	12.98	2.84
신발	.668	.446	58.007***	12.02	2.63
피복 및 신발 서비스	.400	.160	13.718***	16.93	3.70

*p<.05 ***p<.001

〈표 8〉 표본교차상관계수

	관측치(분기)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외의	.02	.02	.11	.15	.26	.40	.55	.74	.53	.42	.41	.29	.30	.21	.10
스웨터/셔츠	.01	.05	.10	.15	.28	.35	.52	.66	.52	.42	.39	.29	.18	.14	.02
내의	.02	.08	.12	.20	.19	.31	.41	.51	.50	.35	.34	.21	.01	-.05	-.20
직물/실	.04	-.05	-.06	-.20	-.15	.12	.15	.21	.33	.19	.24	.21	.22	.16	.07
기타피복	.08	.15	.16	.12	.16	.16	.26	.43	.28	.17	.17	.08	-.09	-.01	-.11
신발	.03	.08	.12	.18	.27	.33	.55	.67	.47	.33	.20	.15	.08	.05	.03
피복 및 신발 서비스	-.02	.05	.09	.19	.27	.37	.34	.40	.45	.22	.47	.29	.16	.25	-.02

〈표 9〉 왜도통계량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1.89	-.74	-.10	-.02	-.68	-2.06	-.94

2)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의 변동 형태

연구문제 3-2의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이 경기변동에 순행하는지 아니면 역행하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8), 비목 모두의 표본교차상관계수 최대치가 양수로 나와 비목 모두는 경기에 순행함을 알 수 있다. 즉, 경기가 상승하는나 아니면 하강하느냐에 따라 이들 비목의 소비지출도 같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다. 또한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이 경기변동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8), 비목 중 외의, 스웨터/셔츠, 신발, 기타피복의 표

본교차상관계수의 절대값의 최대치가 0분기로 나와 이들 비목의 소비지출은 경기변동과 동행함을 알 수 있다. 즉, 경기가 상승 혹은 하락하는 같은 분기에 이들 비목의 소비지출도 같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다.

경기상승국면과 하락국면에서의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의 지속기간 및 변동폭 정도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9), 비목 모두의 왜도통계량이 음수로 나와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 모두는 경기상승국면과 하강국면에서 비대칭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은 지난 20여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질적으로도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거시경제자료를 가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를 보는 종적 연구는 주로 경제학에서 경제정책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소비자학이나 의류학에서도 소비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경제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점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기변동현상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기간은 1979년 1사분기~1998년 2사분기의 약 20여년간이었으며, 분석기간 동안 경기정점은 1979년 2월, 1984년 2월, 1988년 1월, 1992년 1월, 1996년 3월의 5차례 있었고, 경기저점은 1980년 9월, 1985년 9월, 1989년 7월, 1993년 1월의 4차례 있었다. 이 중 최대 호황기는 1988년 1사분기였고 최대 불황기는 1980년 3사분기와 1997년 말 이후 현재였다.

피복소비지출이 실제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 결과, 피복소비지출은 경기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호황보다는 경기 불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경기 불황기에 소득감소 및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피복소비지출을 더 많이 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복소비지출은 외식비, 가구·가사비, 교양오락비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 비목과 더불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불황기에 소득과 소비의 균형관계를 맞춰 주는 조절비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복소비지출 각 비목들도 모두 경기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특히 외의, 신발, 스웨터/셔츠의 소비지출은 다른 비목에 비해 경기변동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 경기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비목임을 알 수 있었다.

피복소비지출의 변동 정도는 사회전체의 경기변동 정도보다 더 커서 경기가 1만큼 변동할 때 피복소비지출은 2.6배 정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복소비지출은 경기변동에 순응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가 상승 혹은 하강하는 같은 분기에 피복소비도 같이 증가 혹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경기상승국면과 하강국면에서의 피복소비지출 패턴을 알아본 결과, 경기상승국면은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하강국면은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복관련 생산업자나 소매업자, 마케터들에게는 사회 전체의 경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학적 접근은 그 동안 의류학 연구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사회심리학적, 마케팅적 접근에 덧붙여 소비자들의 소비지출행동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일조하리라 생각하며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자료는 가계소비지출액을 가계구성원수로 나눈 소비자 1인당 평균지출액으로서 가계구성 및 개인의 특성이 무시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에 4번의 공식적인 경기변동이 있었는데, 경기상승기별 혹은 경기하강기별 피복소비지출 특성을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다.

끝으로, 최근 우리의 경제 불황은 지난 20년간의 경제상황 중에서도 가장 혹심하여 일상생활 곳곳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경제불황을 겪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소비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후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양식을 보일지 그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참 고 문 헌

- 김기화(1990). 경기순환이론, 다산출판사.
 송원호(1998).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에 관한 연구 : GDP의 순환변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한리뷰(1998, 여름). 신한종합연구소, 7-61.
 양병선(1997). 한국의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은화천(1996). VAR 모형에 의한 한국의 경기순환원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원(1990). 한국소비지출의 특성과 그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1997). 패션 마케팅. 서울 : 교문사.
- 정수진(1996).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변화 양상과 그 결정요인.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정충영 · 최이규(1998).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 조하현(1991). 한국의 경기변동과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최승로(1988).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명희 · 박유성(1994). 시계열자료분석, 자유아카데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5). 가계생활지수의 개발.
- 홍인득(1989). GNP변화분석을 통한 한국의 경기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8). 경기종합지수 각월호.
- 통계청(1989). 물가년보.
- 통계청(1998. 9월). 최근의 서울지역 경제동향, 서울지역 통계사무소, 48-61.
- 통계청(1979~1998). 한국통계월보.
- 한국은행(1994~1998). 국민계정.
- Burns, A. F. & W. C. Mitchell(1946). Measuring Business Cycles, NBER.
- Keynes, J. M.(1936).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Inc.
- Sproles, G. B.(1979). Fashion :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 Burgess Publishing Company.